

# 칠십인역의 번역 기술과 히브리어 동사 형태<sup>1)</sup>

- 읍기를 중심으로<sup>2)</sup> -

이상혁\*

## 1.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칠십인역 읍기에서 사용된 동사 형태(Verbal form)들의 선택의 동인을 연구하는 것으로 히브리어 읍기에 나타난 동사 체계의 특징에 근거하여서 선택의 동인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히브리어 동사 형태에서 그리스어 동사 형태로 번역되어지는 방법에 대한 분석을 연구의 방법으로 삼았다. 히브리어의 동사 형태<sup>3)</sup>는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어로 옮겨진다. 첫째는 히브리어의 서로 다른 동사 형태들이 그리스어에서 각각 동일한 동사 형태로 번역되는 것이다. A 형태와 B 형태가 /가/ 형태와 /나/ 형태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가/와 /가/ 형태로 번역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동화(Assimilation)라고 한다. 둘째는 동일한 동사 형태들을 서로 다른 동사 형태로 번역하는 것이다. A와 A를 /가/와 /가/로 번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2 (마르크 블로흐) 대학교 졸업, 구약학 박사

- 1) 이 글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2 - 마르크 블로흐 대학교 개신교 신학부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 (Etudes sur le système verbal dans la Septante de Job, 2006)의 4장의 일부를 근거로 수정, 첨삭한 것이다.
- 2) 칠십인역 읍기는 마소라 본문에 비해서 길이가 짧은 편이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칠십인역의 번역 대본이 마소라 본문과 거의 유사한 본문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칠십인역의 결손 부분은 오리겐에 의해서 테오도션(Theodotion) 번역으로 채워졌다. 테오도션과 칠십인역은 다른 역본이므로 본 연구에서 테오도션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피팅겐 편집본을 참고하였다.
- 3) 본 글에서 접두형 동사는 익톨(Yiqtol), 접미형 동사는 카탈(Qatal), 강모음화 와우(י)와 접두형 동사가 결합된 것은 와우익톨(Wayyiqtol), 약모음화 와우(י)와 카탈이 붙어 있는 경우는 웨카탈(Weqatal), 독립된 문장의 술어로 사용되는 분사를 코텔(Qotel)로 표기하였다. 참조, P. Joûon, *Grammaire de l'hébreu biblique*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23, 1996), 321, 327, 338-341. 대개의 문법책에서는 접두형 동사를 미완료(Imperfect), 접미형 동사를 완료(Perfect), 와우익톨을 와우연속법(Waw Consecutive) 혹은 와우전환법(Waw Conversive)으로 부른다. 이러한 명칭들은 히브리어 동사체계에 대한 특정 주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다. 가령, 완료, 미완료 등은 상(Aspect)의 관점에서 히브리어 동사를 해석하는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용어이다. 히브리어 동사체계를 가리켜 공공연히 수수께끼라 할 정도로 의견이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 열린 연구를 위해서는 형태론적 부분에 근거한 가치 중립적 용어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명덕("접두형 동사의 과거 시제 사용",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7 (2005), 각주 3)도 기능을 규정하는 "완료와 미완료"보다는 형태에 따라 "접미형 동사와 접두형 동사 또는 qatal 동사와 yiqtol 동사"의 사용을 제안한다.

역하는 것이 아니라 /가/와 /나/로 번역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화(Dissimilation)라고 부른다. 동사 형태를 번역할 경우, 이 두 가지 방법은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히브리어 욱기에서 한 동사 형태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형태적으로 구별되는 히브리어 욱기의 동사 형태들이 서로 호환될 만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A 형태는 /가/, /나/, /다/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B 형태는 /나/, /다/, /라/의 기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어 욱기 동사체계의 경우는 히브리어 산문에서 사용되는 일반적 용법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욱기에 나타난 동사체계는 “의미 전환법(Semantic conversion)”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의미전환법은 동사 형태가 다른 면 가치도 다르다는 주장에 반한다. 이 원리에 의하면 한 동사 형태가 시간과 양태를 자유롭게 넘나 들 수 있는 것으로 동일한 동사 형태가 다양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익톨, 카탈, 코텔 등이 과거에 발생한 사건뿐 아니라 일반적 사실 같은 양태도 표현한다.<sup>4)</sup> 각 동사 형태의 의미에 대해서는 관련된 형태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 개별적으로 설명될 것이다.<sup>5)</sup>

비록 동사 형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화·동화 기술과 관련한 칠십인역 욱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간략히 알아보는 것은 유익할 것 같다. 스위트(H. B. Swete)에 의하면, 이화 기술은 히브리어 단어를 다양한 색깔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았고 동화 기술은 덜 다듬어지고 무심한 번역의 표시로 생각했다.<sup>6)</sup> 라이터(N. Leiter)는 이화현상은 원문이 어렵거나 번역자가 자신이 선택한 단어에 자신이 없을 경우 모든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할 때, 또는 두 번째 단어를 통하여 첫 번째 단어에 다른 의미를 부가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녀는 스위트의 입장에 반대하며 동화현상은 번역자의 어휘력 결핍이나 부주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칠십인역 번역자들의 일반적 번역 경향이라고 보았다.<sup>7)</sup> 칠십인역 욱기를 연구하고 욱기 번역자의 언어 능력을 높게 평

4) 보다 자세한 설명은 우상혁의 논문(“Etudes sur le système verbal dans la Septante de Job”, Th.D. Dissertation [Université Strasbourg II - Marc Bloch, 2006], 30-35)을 보라.

5) 동사 형태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본 글에서 사용되는 양태와 시간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양태에는 인지(Epistemic) 양태와 의지(Deontic) 양태가 있다. 인지 양태는 화자의 “지능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이며 의지 양태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다. 인지 양태는 앞으로 일어날 것을 내다보는 “예견”과 일반적 진리로 받아들이는 “필연성”으로 나눌 수 있다. 의지 양태는 화자의 바람을 표현하는 “소망”과 화자가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명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간은 말하는 시점 이전의 사건과 말하는 시점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 흔히 말하는 미래는 인지 양태의 “예견”으로 설명할 수 있다.

6) H. B. Swete,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in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14), 328-329.

7) N. Leiter, “Assimilation and Dissimilation Techniques in the LXX of the Book of Balaam”, *Textus* 12 (1985), 79-95.

가하였던 쿠츠(K. V. Kutz)는 이화와 동화 기술은 문체 혹은 문맥적 의미를 고려한 번역자의 심사숙고의 결과로 보았다.<sup>8)</sup> 위 세 사람은 이화현상이 번역자의 노력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지만 동화현상에 대해서는 번역자의 무능력에 기인하는 무의식적인 번역과 의도적인 정책으로 보는 대립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sup>9)</sup>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시각에 의하면 동화와 이화현상의 원인은 번역자에게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동화·이화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즉 번역자의 정책 혹은 의도 유무 외에도 원문의 언어인 히브리어의 문법적 특성이 동화현상과 이화현상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히브리어의 특성이 칠십인역 번역에 일정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칠십인역에 대한 히브리어의 문법적 영향

### 2.1. 이화현상

만약 표현의 다양성을 위해서 번역자가 히브리어의 동일한 동사 형태를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사 형태로 번역하였다면, 이것은 번역자의 의도적인 정책이다. 칠십인역 율기에서 이런 예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sup>10)</sup> 하지만 번역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원문의 언어인 히브리어 동사체계의 특성도 이화현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히브리어 율기의 한 동사 형태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에 번역자는 여러 동사 형태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히브리어 동사체계의 문법적 특성이 번역자의 번역 기술을 통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화현상은 번역자가 원문의 의미에 집착하게 될 때 번역자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기에, 원문의 언어가 번역문의 문체에 간접

8) K. V. Kutz, "The Old Greek of Job",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97), 35-37.

9) 일반적으로 칠십인역의 번역자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체계적인 번역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참조, A. Aejmelaus, "Translation Technique and Intention of the Translator", A. Aejmelaus, ed., *On the Trail of the Septuagint Translators* (Kampen: Kok Pharos Publishing House, 1993), 67-68; S. Olofsson, *The LXX Version* (Stockholm: Almqvist & Wiksell International, 1990), 11; J. Barr, *The Typology of Literalism in Ancient Biblical Translation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9), 280-281; 300. 반면, 아퀼라(Aquila)는 히브리어 원문에 최대한 충실하고자 일관성 있게 체계적인 번역 기술을 사용한 그리스어 번역이다; 참조, L. L. Grabbe, "Aquila's Translation and Rabbinic Exegesis", *Journal of Jewish Studies* 33 (1982), 529, 각주 10.

10) 참조, 율기 4:16; 5:6; 9:18; 21:6; 22:6.

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들을 보자.

익톨 = 가정법(미래형<sup>11)</sup>) + 희구법<sup>12)</sup>

רַק אֵלָיו אֶל־תְּשַׁלַּח יָדְךָ BHS Job 1:12

너의 손을 오직 그에게 보내지 마라.

LXX Job 1:12 ἀλλὰ αὐτοῦ μὴ ἄψῃ

그러나 너는 그를 건드리지는 마라.

יְהִי שֵׁם יְהוָה מְבָרָךְ BHS Job 1:21

하나님의 이름이 축복 받으소서.

LXX Job 1:21 καὶ ἐγένετο εἶη τὸ ὄνομα κυρίου εὐλογημένον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축복 받으소서.

욥기 1:12에서 익톨(תְּשַׁלַּח)은 명령, 욥기 1:21의 익톨(יְהִי)은 소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sup>13)</sup> 이들은 각각 명령을 의미하는 가정법(ἄψῃ)<sup>14)</sup>과 소원을 나타내는 희구법(εἶη)으로 번역되었다.<sup>15)</sup> 번역자가 의도적으로 원문의 내용을 수정할 생각이 없다면, 이러한 번역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이다. 결국, 이화현상은 히브리어 욥기에서 익톨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익톨 = 단순과거 + 미래

כּוֹשֵׁל יְקִימוּן מַלְיָד וּבְרָכִים כְּרַעוֹת הָאָמִץ BHS Job 4:4

너의 말들이 비틀거리는 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무릎 꿇은 자들에게 힘을 주었다.

11) 욥기 1:12의 ἄψῃ는 가정법과 직설법 미래형의 형태가 동일하다.

12) 본 글에서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한글 번역은 가능한 최대한으로 직역을 하였다.

13) 욥기에서 익톨이 의지(욥 1:12, 21; 5:17; 7:11; 10:2; 11:14; 13:3, 15, 19; 14:14, 15; 16:5, 22; 21:3; 36:3)와 소원(욥 1:21; 3:3, 4<sup>tris</sup>, 5<sup>tris</sup>, 6<sup>tris</sup>, 7<sup>bis</sup>, 8, 9<sup>tris</sup>.)을 의미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14) 가정법은 “명령(Injonction)과 가능성”의 의미를 표현한다. 참조, Y. Duhoux, *Le verbe grec ancien* (Louvain-La-Neuve: Peeters, 2000), 180, 208-209; J. Humbert, *Syntaxe grecque* (Paris: Klincksieck, 1960), 113; B. L. Gildersleeve, *Syntax of Classical Greek* (Groningen: Bouma' Boekhuis B.V. Publishers, 1980; org. ed. 1900), 147.

15) 욥기 5:17에서는 부정어 אַל과 함께 사용된 익톨이 명령법으로 번역이 되었다.

בּוֹאֲרָא הַיְהוָה אֲשֶׁר־יִבְחַנֵּנוּ אֱלֹהִים וּמוֹסְרֵי אֱלֹהִים BHS Job 5:17

보아라 하나님은 벌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전능자의 교훈을 거부하지 마라.

LXX Job 5:17 μακάριος δὲ ἄνθρωπος ὃν ἤλεγξεν ὁ κύριος νουθέτημα δὲ παντοκράτορος μὴ ἀπεισίου

주님이 벌하는 자는 행복하다. 전능자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라.

LXX Job 4:4 ἀσθενούντας τε **ἐξανέστησας** ῥήμασιν γόνασιν τε ἀδυνατούσιν  
 θάρσος **περιέθηκας**

너는 말로서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웠고 힘없는 자에게 용기를 주었다.

**כַּאֲשֶׁר רָאִיתִי חֲרָשֵׁי אֶן יוֹרְעֵי עֵמָל יִקְצְרוּהוּ** BHS Job 4:8

내가 본 바에 따르면 악을 갈구하고 불의를 뿌리는 자는 그것을 수확한다.

LXX Job 4:8 καθ' ὃν τρόπον εἶδον τοὺς ἀροτριῶντας τὰ ἄτοπα οἱ δὲ  
 σπείροντες αὐτὰ ὀδύνας **θεριοῦσιν** ἑαυτοῖς

내가 불의를 갈구는 자들을 본 것에 의하면, 고통을 뿌린 자들은 그들 자  
 신이 그것을 거두게 된다.

욥기 4:4에서는 익톨이 욥이 과거에 행하였던 일을 표현하기 때문에 단순과거  
 를 사용하였다. 욥기 4:8에서는 익톨이 욥의 개인적 경험보다는 일반적 사실을  
 표현한다. 직설법 미래형은 고전 그리스어에서 일반적 사실을 표현하는 데도 자  
 주 사용되었다.<sup>16)</sup> 이 두 구절은 익톨은 각각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그리스  
 어에서 다른 동사 형태로 번역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익톨 = 회구법 + 단순과거

**יּוֹם יָאֲבָר יוֹם אֲנִלֵּךְ בּוֹ** BHS Job 3:3

내가 태어나던 날이 멸하였더라면.

LXX Job 3:3 ἀπόλοιτο ἡ ἡμέρα ἐν ἣ **ἐγεννήθην**

내가 태어나던 날이 멸하였더라면.

같은 절에 있는 두 개의 익톨이 각각 회구법과 단순과거로 번역되었다. 앞에  
 있는 익톨(יָאֲבָר)은 단형(Jussive [의지형])이며 뒤에 오는 익톨(אֲנִלֵּךְ)은 장형  
 (Indicative [직설법])이어서 각각 회구법과 단순과거로 번역되었다는 주장도 제  
 기될 수 있다.<sup>17)</sup> 하지만 욥기에서는 아래의 예들이 보여 주듯이 같이 장형과 단  
 형을 구분하는 부정어가 있음에도 장형과 단형은 의미상의 차이가 없다.<sup>18)</sup>

16) B. L. Gildersleeve, *Syntax of Classical Greek*, 111-112.

17)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산문에서 단형(Jussive, Short form)은 의지 양태를 장형(Indicative, Long form)은 인지 양태를 위해서 사용된다. 참조, A. Shulman, "The Use of Modal Verb Forms in Biblical Hebrew Pros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1996), 140-190; "The Function of the 'Jussive' and 'Indicative' Imperfect Forms in Biblical Hebrew Prose", *Zeitschrift für althebraistik* 13 (2000), 172-173.

18) 이것으로 보아서 히브리어 욥기는 장형과 단형의 벽을 의도적으로 허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욥기에서 단형이 의지 양태(1:12; 3:3-9) 뿐만 아니라 인지 양태(10:16, 17; 13:27; 15:33; 18:9, 12;

וְלֹא־תִירָא מִשֵּׁר כִּי יָבוֹא BHS Job 5:21

그리고 재난이 오더라도 너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LXX Job 5:21 καὶ οὐ μὴ φοβηθῆς ἀπὸ κακῶν ἐρχομένων

그리고 너는 다가오는 악을 두려워하지 마라

נֹרֵא אֶל־הָאָרֶץ מִחַיִּת הָאָרֶץ אֶל־תִּירָא BHS Job 5:22

너는 땅의 짐승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LXX Job 5:22 ἀπὸ δὲ θηρίων ἀγρίων οὐ μὴ φοβηθῆς

너는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마라.

따라서 욱기에서 장형과 단형을 구분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첫 번째 익톨은 소원을, 두 번째 익톨은 말하는 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각 희구법과 단순과거로 번역이 된 것이다. 히브리어의 동일한 동사 형태가 그리스어에서 각각 다르게 번역이 된 것은 익톨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번역자에게 있어서 이화기술은 히브리어 동사체계의 복잡성에 기인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

카탈 = 단순과거 + 미래형

בֹּאֵרָא אֲנִי הִנֵּה־נָא פִּי דִבְרָה לְשׁוֹנֵי בִּחְבִּי BHS Job 33:2

보아라 내가 나의 입을 열고 나의 혀가 나의 입 안에서 말한다.

LXX Job 33:2 ἰδοὺ γὰρ ἤνοιξα τὸ στόμα μου καὶ ἐλάλησεν ἡ γλῶσσά μου

보아라 나는 나의 입을 열었고 나의 혀가 말했다.

בְּשָׂרוֹ מְנַעַר יָשׁוּב לַיָּמִי עֲלוּמָיו BHS Job 33:25

그의 살이 어린아이보다 더 고와지며, 그는 젊은 시절로 되돌아 갈 것이다.

LXX Job 33:25 ἀπαλυνεῖ δὲ αὐτοῦ τὰς σάρκας ὡσπερ νηπίου ἀποκαταστήσει δὲ αὐτὸν ἀνδρωθέντα ἐν ἀνθρώποις

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부드럽게 될 것이며 남자들 중에서도 그가 힘이 있도록 회복시킬 것이다.

20:23; 22:28; 23:9, 11; 24:14; 27:22; 33:11, 21; 34:29, 37; 36:14, 15; 37:4, 5; 40:9, 19)도 표현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

19) 니카치(A. Niccacci, *The Syntax of the Verb in Classical Hebrew Pros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0], 194-195)에 의하면, 익톨은 우가렷어 시문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해서 사용되었고 오경의 오래된 시문에서도 이러한 메카니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참조, 창 49; 출 15; 민 23-24; 삿 5; 신 32-33.

욥기 33:2의 카탈(פְּתוּחַהּ, פְּתוּחַהּ)은 엘리후의 “입을 여는 동작”과 “말을 하는 동작”을 가리킨다. 이 두 사건은 말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이미 이루어진 동작이기에 번역자는 단순과거로 번역하였다. 반면 욥기 33:25의 카탈(שָׁפַט)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에게 질병과 고통을 주어 잘못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말하면서, 교만한 자에게 닥칠 일을 묘사하는 것이 욥기 33:25이다. 즉 “살이 어린아이보다 더 고와지는” 것은 말하는 시점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 아니다. 욥기 33:25의 카탈(שָׁפַט)은 잠정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욥기 33:25의 카탈(שָׁפַט)은 화자의 “지식적 혹은 예지적 판단”인 인지 양태를 드러내고 있다. 번역자는 이러한 의미를 고려하여서 그리스어에서 미래형을 선택하였다. 칠십인역에서 히브리어 원문의 카탈이 각각 그 의미대로 번역이 된 셈이다. 결국 단순과거와 미래형을 선택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히브리어 카탈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번역자의 협조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가 원문의 내용을 바꾸려고 했다면 단순과거와 미래형이 욥기 33:2와 욥기 33:25의 자리를 차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번역자가 원문의 내용과 형식에 철저히 존중하였다면, 카탈을 항상 동일한 동사 형태로 번역하려 하였을 것이다. 번역자가 외형적인 동사 형태에만 얽매이지 않고 본문에서의 의미를 좇아 번역하였기에 이화현상이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카탈이 이화현상의 원인을 제공했다.

## 2.2. 동화현상

욥기에서 서로 다른 동사 형태들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번역자는 형태적으로는 구별되지만 기능적으로 유사한 히브리어 동사 형태들을 동일한 동사 형태로 번역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히브리어 동사체계의 특성이 번역자로 하여금 동화기술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구체적인 예들을 보도록 하자.

카탈 + 익톨 = 단순과거

לָמָּה לֹא מָרַחֵם אֱמוּנַת מִבְּטָן יְצֵאתִי וְאֲנִי

왜 나는 태에서 죽지 않았는가, 왜 나는 배에서 나왔는가,

왜 나의 숨이 끊어지지 않았는가?

LXX Job 3:11 διὰ τί γὰρ ἐν κοιλίᾳ οὐκ ἐτελεύτησα ἐκ γαστρὸς δὲ ἐξήλθον  
καὶ οὐκ εὐθὺς ἀπαλόμην

무엇을 위하여 나는 태에서 죽지 않았는가, 왜 나는 배에서 나와서 죽지  
않았는가?

כִּי אֵינִי מְדַעַתְּ מִדְּוַע קְדָמוֹנִי בְּרַכּוּיִם וּמִדֶּשֶׁתְּרוּם כִּי אֵינִי BHS Job 3:12

왜 무릎이 나를 받았는가? 왜 내가 젖을 빨았는가?

LXX Job 3:12 ἵνα τί δὲ συνήνησάν μοι γόνατα ἵνα τί δὲ μαστοὺς ἐθήλασα

무엇 때문에 내가 무릎과 만났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젖을 빨았는가?

욥기 10:9의 וְאֶל-עַפְרַתְשִׁיבִי וְאֶל-עֶשְׂתִּינִי כִּי-כַחֲמֹר עָשִׂיתִנִּי (당신께서 진흙으로 나를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흙으로 돌려보내십니다)에서 카탈과 익톨은 명백하게 시간상의 차이가 있다. 카탈(עֶשְׂתִּינִי)은 하나님께서 욥을 만들었던 시점을 가리키는 과거 사건을 지시한다. 반면, 익톨(תְּשִׁיבִי)은 현재의 상황을 묘사한다. 위 예의 카탈과 익톨은 시간적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두 형태는 특별히 욥기 시문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sup>20)</sup> 욥기 3:11, 12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실제로 과거에 발생한 욥의 출생과 관련된 것이다. 11절에 언급한 אָמוֹת(태에서 죽고), וַיֵּצְאוֹתִי(배에서 나오고), אֲנִי(숨이 끊어지다)와 12절의 קְדָמוֹנִי(무릎과 만나고), אֵינִי(젖을 빨고)는 모두 동일한 시간대에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에 해당된다. 따라서 익톨과 카탈 모두 동일한 시간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Held(Held)는 과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익톨과 카탈은 서로 교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것은 원셈족(Proto-semitic)어에서 널리 알려진 문학적 기술이라고 한다.<sup>21)</sup> 위 두 절에 있는 카탈과 익톨은 모두 단순과거로 옮겨졌다. 이렇게 번역이 된 이유는 카탈과 익톨이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욥기 3:11과 욥기 3:12에서 카탈과 익톨의 대응어로 단순과거가 선택된 것은 히브리어의 동사체계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번역자가 사용한 동화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서 원문의 언어인 히브리어 문법적 특성이 번역문의 동사 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히브리어 동사 형태의 다양성은 칠십인역에서 사라졌다. 이론적으로 번역자는 히브리어 동사 형태의 다양성을 번역문에서도 그대로 실현할 수 있었다. 가령, 반과거, 역사적 현재로 사용될 수 있는 현재형, 종종 단순과거와 의미상 유사하게 사용되는 현재완료

20) 참조, 욥기 3:3, 11, 12, 25; 4:3; 15:32; 19:15, 16; 29:3-4; 32:11; 39:4.

21) M. Held, "The yqtl-qtל (qtל-yqtl) Sequence of Identical Verbs in Biblical Hebrew and Ugaritic", M. Ben-Horin, B. D. Weinryb, and S. Zeiten, eds., *Studies and Essays in honor of A. A. Neuman* (Leiden: Brill, 1962), 281-290.

등이 번역자의 선택 범위 내에 있었다. 번역자가 판단하기에 미완료를 드러내는 반과거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았다. 역사적 현재는 욥기 번역자가 가끔 사용하는 용법인데,<sup>22)</sup>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였다. 현재완료가 단순과거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욥기에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번역자가 문체의 다양성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였다.<sup>23)</sup>

חָפְזִים רָשָׁעִים קָרְלוּ רָגְזוּ וְשָׂמוּ יָנֹחוּ וַיָּנִיעוּ כֹּחַ BHS Job 3:17

거기에서 악한 자들도 분노를 멈추고 거기에는 힘에 지친 자들도 휴식을 취한다.

LXX Job 3:17 ἐκεῖ ἀσεβεῖς ἐξέκαυσαν θυμὸν ὀργῆς ἐκεῖ ἀνεπαύσαντο κατὰκοποι τῷ σώματι

거기에는 불의한 자들도 분노의 화를 멈추고 거기에서는 몸이 피곤한 자들도 쉰다.

욥기 3:17은 죽은 자들이 있는 세상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 절에서 사용된 카탈(קָרְלוּ)과 익톨(יָנֹחוּ)의 동사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일반적 사실”을 표현한다<sup>24)</sup>. 번역자는 이 두 동사 형태를 칠십인역에서 동일한 동사 형태, 단순과거(ἐξέκαυσαν, ἀνεπαύσαντο)로 옮겼다<sup>25)</sup>. 그리스어에서 단순과거는 일반적 사실을 표현할 수 있었다.<sup>26)</sup> 따라서 욥기 3:17의 경우에 서로 구별되는 동사 형태를 하나의 형태로 통일하여서 번역하여도 히브리어 원문과 칠십인역 사이에 의미상의 차이가 없다. 그 이유는 욥기 3:17에서 카탈과 익톨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화 기술의 원인 제공을 한 것은 결국 히브리어 동사체

22) 참조, 욥기 1:18; 4:1.

23) 참조, 욥기 5:3, 27; 15:25.

24) 욥기 3:17-19는 만약 욥이 죽었다면 갔었을 세상을 묘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1. 내가 그 때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갔었다면 그 곳에 살고 있는 토끼를 만났을 것이다. 2. 그 곳은(달나라는) 토끼가 방아를 마음대로 쪼고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편하게 사는 곳이다. 욥이 죽지 않아서 그 세상(세울)에 가지 못한 것처럼 나도 우주선을 타지 못해서 달나라에 가지 못했다. 1번은 내가 우주선을 탔다면 달나라에 가서 토끼를 만났을 것을 가정하고 있다(1번의 가정은 욥3:13-15에 해당한다). 이어서 2번에서 나는 내가 가진 못한 달나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토끼가 방아를 쪼고 사람의 간섭 없이 토끼가 편하게 사는 달나라에 대한 설명은 일반적 사실(General truth)에 해당하기에 특정 시간(가령, 과거의 시간)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17절에서 묘사된 세울의 모습도 화자가 일반적 사실로 간주하고 설명하고 있기에, 17절은 특정 시간을 초월한 문장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25) 욥기 12:17-24에서는 익톨(욥 12:17, 19, 20), 카탈(12:21), 와우익톨(12:22, 24)은 신적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데 모두 단순과거로 번역되었다.

26) B. L. Gildersleeve, *Syntax of Classical Greek*, 113.

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칠십인역 욥기 번역에 히브리어가 참여하고 있다는 주장은 충분히 가능하다.

קָרַחְתָּ רַבִּים וְיָרִים רַבּוֹת תְּחִיָּה BHS Job 4:3

너는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지친 손을 붙들어 주었다.

LXX Job 4:3 εἰ γὰρ σὺ ἐνουθέτησας πολλοὺς καὶ χεῖρας ἀσθενοῦς παρεκάλεσας

너는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약한 손들을 위로하였다.

욥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 것”과 “지친 손을 붙들어 준” 행동은 말하는 현재 시점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도 아니며 앞으로 발생할 것을 묘사한 것도 아니다. 모두 과거 어느 때에 있었던 욥의 일상적 행동들이다. 욥기 4:3에서 카탈(קָרַחְתָּ)과 익톨(יָרִים)의 문법적 기능을 다르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 모두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번역자는 카탈과 익톨을 단순과거로 옮겼다. 하지만 욥기 4:3의 경우에 히브리어의 의미가 그리스어에 그대로 전달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고대 시문에서 카탈과 익톨은 과거의 ‘습관적 동작’을 위해서도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sup>27)</sup> 만약 욥기 4:3의 카탈과 익톨이 모두 욥의 일상의 반복적 행동을 표현하고 있다면, 칠십인역은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살리지는 못하였다. 그리스어의 단순과거는 과거의 반복적 동작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다.

לְעַבְרִי קָרַחְתִּי וְלֹא יַעֲנֶה בְּמוֹפִי אֶתְחַנְּנֶנּוּ BHS Job 19:16

나는 나의 종을 불렀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의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였다.

LXX Job 19:16 θεράποντά μου ἐκάλεσα καὶ οὐχ ὑπήκουσεν στόμα δέ μου ἐδέετο

나는 나의 종을 불렀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나의 입이 부탁했다.

사건의 논리적 관계에 의하면 “부르다(קָרַחְתִּי)”는 “대답하다(יַעֲנֶה)”에 선행한다. 하지만 사건의 논리적 선행 관계가 시제의 차별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7) F. C. Fensham, “The Use of the Suffix Conjugation and the Prefix Conjugation in a few Old Hebrew Poems”, *Journal of Northwest Semitic Languages* 6 (1978), 14-18; M. S. Smith, “The qatala Form in Ugaritic Narrative Poetry”, D. P. Wright, D. N. Freedman and A. Hurvitz, eds., *Pomegranates and Golden Bells* (Winona Lake: Eisenbrauns, 1995), 797-799.

이 두 사건은 동일한 시간대에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비록 원문의 동사 형태가 다르더라도 번역문에서 이를 다르게 할 이유는 없다.

익톨 + 웨카탈 = 미래형

כְּמוֹ-נֹטֵעַ קָצִיר וְעֵשָׂה וַיִּפְרֹחַ מִיָּם מַרְיָהּ BHS Job 14:9

그것은 물의 향기를 피울 것이며 초목처럼 수확을 낼 것이다.

LXX Job 14:9 ἀπὸ ὀσμῆς ὕδατος ἀνθήσει ποιήσει δὲ θερισμὸν ὥσπερ νεόφυτον

그것은(나무는) 물의 향기 가운데 꽃을 피울 것이며 새 나무처럼 수확을 낼 것이다.

“물의 향기를 내는” 것과 “수확을 내는” 것은 병렬적 관계를 이룬다. 웨카탈과 익톨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참조, 욥 14:11).<sup>28)</sup> 웨카탈(וְעֵשָׂה)과 익톨(וַיִּפְרֹחַ)은 모두 일반적 사실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지 양태에 속한다.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번역자는 동일한 형태, 미래형으로 옮겼다. 이것은 원문의 형태보다는 원문의 의미에 충실하려는 번역자의 번역 정책을 보여 준다. 하지만 욥기 14:9에서 사용된 동화 기술을 번역자의 정책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원문의 의미에 충실하였던 것은 원문에서 웨카탈과 익톨이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 동사체계의 특성이 동화기술을 사용하게 만든 것이다.

웨카탈 + 카탈 = 단순과거

רָאוּנִי נְעָרִים וְנַחֲבָאוּ וַיִּשִׁישִׁים קָמוּ עִמָּדוֹ BHS Job 29:8

젊은이들이 나를 보고 숨었다. 늙은이들은 일어나 섰다.

LXX Job 29:8 ἰδόντες με νεανίσκοι ἐκρύβησαν πρεσβύται δὲ πάντες ἔστησαν

나를 본 젊은이들이 숨었다. 늙은이들은 모두 섰다.

웨카탈(וְנַחֲבָאוּ “숨었다”)과 카탈(וַיִּשִׁישִׁים “섰다”)은 과거 어느 한 때에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욥에게 하였던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욥기 29:8에서 웨카탈과 카탈은 시간적 차이가 없다. 웨카탈과 카탈이 모두 과거 사건을 가리키고 있기에 칠십인역 욥기 번역자는 단순과거를 선택하였다. 동화기술의 원인은 히브리어의 서로 다른 두 동사 형태가 똑같은 문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28) 웨카탈과 다른 동사 형태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음 책을 보아라. P. Joüon, *Grammaire de l'hébreu biblique*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96; org. ed., 1923), 95-109, 327-336.

카탈 + 익톨 = 미래형

לָכֵן יִרְאוּהוּ אַנְשִׁים לֹא-יִרְאוּהָ כָּל-חַכְמֵי-לֵב BHS Job 37:24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며 그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LXX Job 37:24 διὸ φοβηθήσονται αὐτὸν οἱ ἄνθρωποι φοβηθήσονται δὲ αὐτὸν καὶ οἱ σοφοὶ καρδίᾳ

그리하여 그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할 것이며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도 그를 두려워할 것이다.

욥기 37:24에서 나열 관계에 놓여 있는 카탈(יִרְאוּהוּ)과 익톨(יִרְאוּהָ)은 모두 미래형으로 번역되었다.

와우익톨 + 카탈 = 회구법

וַתְּהִי לְךָ תִּקְוָה וְעֵלְתָה קַפְצָּה פִּיהָ BHS Job 5:16

가난한 자에게 희망이 있으며 악한 자는 그의 입술을 닫을 것이다.

LXX Job 5:16 εἴη δὲ ἀδυνατώ ἐλπίς ἀδίκου δὲ στόμα ἐμφραχθείη

악한 자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며 불의한 자의 입은 막히게 될 것이다.

욥기 5:16 카탈과 와우익톨이 이야기체에서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성서 히브리어 산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용례이다. 하지만 욥기 시가에서는 와우익톨과 카탈이 현재적 사건<sup>29)</sup>과 인지 양태를 표현하기도 한다. 카탈(קַפְצָּה)과 와우익톨(וַתְּהִי)이 있을 수 있는 사실로서 “개연성”의 성격을 띠고 있는지, 일반적 진리로서의 “필연성”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따라서 번역자에게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 번역자는 개연성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는 서로 다른 두 동사 형태를 하나의 동사 형태로 통일하였다. 욥기 5:16에서 카탈과 와우익톨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제르(Mayser)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프톨레메 시대에 회구법은 “소망”을 표현한 경우보다 “개연성”을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sup>30)</sup> 욥기 5:16에서 개연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회구법을 사용한 것은 특별

29) 욥기 7:5 וַיִּמָּאֵס רִגְעֵי עֵרִי עֶפְרַר וְגִישׁ רִמָּה בְּשָׂרֵי רִמָּה לֵבֶשׂ לִבְשׁ בְּשָׂרֵי רִמָּה (나의 살은 구더기와 진흙으로 덮혀 있고 나의 피부는 갈라져 벗겨진다); 욥기 7:6 וַיִּמְּוֶן מִנִּי קֶלֶוּ מִנִּי-אָרְגָן וַיִּקְלוּ בְּאֶפְסֵי תִקְוָה (나의 날들은 배보다 더 빠르고 희망없이 간다)에서 카탈과 와우익톨은 말하는 시점에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표현하고 있다.

30) E. Mayser, *Grammatik der griechischen Papyri aus der Ptolemäerzeit mit Einschluss der gleichzeitigen Ostraka und der in Agypten verfassten Inschriften* (Berlin-Leipzig: Walter de Gruyter & Co, 1926), 295-296. 마이제르(E. Mayser)는 문학 외 일반 문서(비서, 개인 편지 등)에서 회구법의 개연성 용법은 127회, 소망 용법은 54회를 발견했다.

한 것이 아니다.

명령법 + 익톨 = 명령법

וְאֵלֶּיךָ וְאֵלֶּיךָ בְּיָדְךָ הִרְחִיקָהּ וְאֵלֶּיךָ בְּיָדְךָ אִם־אֶנּוּן BHS Job 11:14

만약 악이 너의 손 안에 있다면, 그것을 멀리하라. 그리고 너의 천막에 불의가 거하지 못하게 하라.

LXX Job 11:14 εἰ ἄνομόν τί ἐστίν ἐν χερσίν σου πόρρω ποιήσουν αὐτὸ ἀπὸ σοῦ ἀδικία δὲ ἐν διαίτη σου μὴ ἀύλισθήτω

만약 어떤 불의가 너의 손에 있다면, 너에게서 그것을 멀리하라. 불의가 너의 집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욥기 11:14의 전반부에 명령형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후반부도 명령의 의미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성서 히브리어에서는 명령형 앞에 부정어를 사용하여 부정 명령형을 만들지 않고 익톨+부정어 형태를 사용한다. 히브리어 동사체계가 동화기술 사용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번역자가 히브리어 문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번역자가 원문의 의미에 충실했다는 것과 원문을 잘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번역자는 동사 형태에 얽매이지 않았다.<sup>31)</sup>

### 3. 나오는 말

본 연구의 결과와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번역자와 관련한 문제이다. 이는 번역자가 원문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원문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는 어떠하였는지 등에 관한 문제이다. 이화현상의 원인은 욥기 히브리어에서 사용된 한 동사 형태가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데에 있다. 동화기술은 욥기 히브리어의 서로 다른 동사 형태들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칠십인역 욥기 번역자는 개별 동사 형태들의 의미를 잘 파악하여서 번역하였다. 이것은 번역자가 이러한 욥기 히브리어 동사체계의 특성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잘 통제한 편이었고 원문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을 하며, 원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칠십인역 학계에서 잘 알려진 헬싱키 학파의 소이살론-소이니넨은 일반적으로 칠십인역 번역자들은 앞, 뒤의 문맥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번역하고 있는 단어에만 집착했다”는 “짧은 단절 이론”(Theory of

31) 번역자는 화자의 의지(명령)를 표현하는 가정법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명령법으로 번역하였다.

short-fragmentation)을 펼쳤다.<sup>32)</sup> 우리가 살펴 본 이화와 동화현상의 원인 분석에 의하면 칠십인역 욱기 번역자는 바로 눈 앞에 보이는 단어에만 얽매이지 않고 문맥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며 번역하였다.

둘째는 칠십인역 연구에 있어서 원문의 언어였던 히브리어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이다. 순수 창작 작품은 작가의 창조적 문학과 자신이 기록하는 언어의 문법적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sup>33)</sup> 하지만 번역의 경우에는 창작에는 없는 다른 문제가 있다. (번역)작가의 문학적 창조성과 번역어 뿐 아니라 원문의 언어도 번역서 구성에 일정 역할을 한다. 비록 칠십인역 욱기가 다른 책들에 비해서 원문의 형식에 충실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번역을 하였을지라도<sup>34)</sup> 원문의 문법으로부터 마냥 자유롭지는 않았다. 원어가 번역문의 단어(동사 형태) 선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번역하는 원문은 번역 작품의 원천이다. 창작의 경우와는 달리, 원문의 언어에 대한 연구는 번역 작품 연구에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기에 칠십인역 연구에 있어서 히브리어 원문에 대한 정확하고 깊은 이해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셋째, 번역 작품으로서 칠십인역 자체에 대한 연구는 칠십인역의 문체에 대한 연구와 연결되어 있다. 아직 전반적으로 칠십인역의 문체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지만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끄는 주제이다.<sup>35)</sup> 일반적으로 문체는 한 작가의 취향이다. 취향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다. 문체는 여러 가지 가능한 표현 방법 중에서 작가가 선택한 것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sup>36)</sup> 번역 기술은 번역자가 사용한 선택 방법이다. 따라서 번역 기술에 대한 연구는 선택의 동인을 밝히는 데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기에 결국, 번역 기술에 대한 분석은 칠십인역의 문체에 대한 연구와 직결된다.<sup>37)</sup> 칠십인역 욱기에서 번역자의 동사 형태선택 방법에 대

32) I. Soisalon-Soininen, "Beobachtungen zur Arbeitsweise der Septuaginta-Übersetzer", A. Aejmelaeus and R. Sollamo, eds., *Studien zur Septuaginta-Syntax* (Helsinki: Suomalainen Tiedekatemia, 1987), 28-39.

33) 참조, D. Combe, *La pensée et le style* (Paris: Editions Universitaires, 1991), 77.

34) 테크레이는 칠십인역 책들의 번역 경향을 여섯 가지로 나누는데, 에스더, 욱, 잠언을 문학적 번역 작품으로 분류한다. H. Thackeray, *A Grammar of the Old Testament in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org. ed. 1909), 13.

35) M. Harl, G. Dorival and O. Munnich, *La Bible grecque des Septante: du judaïsme hellénistique au christianisme ancien* (Paris: Cerf, 1988), 259-266. 위 저자들은 칠십인역 문체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많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36) 참조, G. Mounin, *Dictionnaire de la linguistiqu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74), 308.

37) 에즈멜라우스(A. Aejmelaeus)는 번역 기술을 번역문과 원문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라 하였다 (A. Aejmelaeus, "What We Talk about When We Talk about Translation Technique", B. A. Taylor, ed., *X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eptuagint and Cognate Studie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1], 532).

한 분석은 번역 작품으로서의 칠십인역 유포의 문체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본 글은 번역자는 왜 이 부분에서 이런 선택을 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번역자는 어떤 번역 방법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었다. 동사 형태 분석만을 통하여서 칠십인역 유포의 전체 문체에 이해와 평가는 불가능하지만 전체 그림의 한 부분을 그릴 수 있다는 데에 본 연구의 기여가 있다고 본다.

<주요어>(Keyword)

칠십인역, 번역 기술, 히브리어, 그리스어, 동사 형태

Septuagint, Translation Technique, Hebrew, Greek, verbal form

<참고문헌>

- 최명덕, “접두형 동사의 과거 시제 사용”,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7 (2005), 67-87.
- Aejmelaeus, A., “Translation Technique and Intention of the Translator”, A. Aejmelaeus, ed., *On the Trail of the Septuagint Translators*, Kampen: Kok Pharos Publishing House, 1993, 65-76.
- Aejmelaeus, A., “What We Talk about When We Talk about Translation Technique”, B. A. Taylor, ed., *X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eptuagint and Cognate Studie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1, 531-552.
- Barr, J., *The Typology of Literalism in Ancient Biblical Translation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9.
- Combe, D., *La Pensée et le Style*, Paris: Editions Universitaires, 1991.
- Duhoux, Y., *Le Verbe Grec Ancien*, Louvain-La-Neuve: Peeters, 2000.
- Fensham, F. C., “The Use of the Suffix Conjugation and the Prefix Conjugation in a few Old Hebrew Poems”, *Journal of Northwest Semitic Languages* 6 (1978), 9-18.
- Gildersleeve, B. L., *Syntax of Classical Greek*, Groningen: Bouma' Boekhuis B.V. Publishers, 1980 org. e.d., 1900.
- Grabbe, L. L., “Aquila's Translation and Rabbinic Exegesis”, *Journal of Jewish Studies* 33 (1982), 527-536.
- Harl, M, Dorival, G and Munnich, O., *La Bible grecque des Septante: du judaïsme hellénistique au christianisme ancien*, Paris: Cerf, 1988.
- Held, M., “The yqtl-qtl (qtl-yqtl) Sequence of Identical Verbs in Biblical Hebrew and Ugaritic”, Ben-Horin, M. B., D. Weinryb, and S. Zeiten, eds., *Studies and Essays in honor of A. A. Neuman*, Leiden: Brill, 1962, 281-290.
- Humbert, J. , *Syntaxe Grecque*, Paris: Klincksieck, 1960.
- Joüon, P., *Grammaire de l'hébreu Biblique*,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96; org. ed., 1923.
- Kutz, K. V., “The Old Greek of Job”,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97.
- Leiter, N., “Assimilation and Dissimilation Techniques in the LXX of the Book of Balaam”, *Textus* 12 (1985), 79-95.
- Mayser, E., *Grammatik der griechischen Papyri aus der Ptolemäerzeit mit*

- Einschluss der gleichzeitigen Ostraka und der in Agypten verfassten Inschriften*, Berlin-Leipzig: Walter de Gruyter & Co., 1926.
- Mounin, G., *Dictionnaire de la linguistiqu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74.
- Niccacci, A., *The Syntax of the Verb in Classical Hebrew Pros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0.
- Olofsson, S., *The LXX Version*, Stockholm: Almqvist & Wiksell International, 1990.
- Shulman, A., “The Function of the ‘Jussive’ and ‘Indicative’ Imperfect Forms in Biblical Hebrew Prose”, *Zeitschrift für althebraistik* 13 (2000), 168-180.
- Shulman, A., “The Use of Modal Verb Forms in Biblical Hebrew Pros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1996.
- Smith, M. S., “The qatala Form in Ugaritic Narrative Poetry”, Wright, D. P., Freedman, D. N., and Hurvitz, A., eds., *Pomegranates and Golden Bells*, Winona Lake: Eisenbrauns, 1995, 789-803.
- Soisalon-Soininen, I., “Beobachtungen zur Arbeitsweise der Septuaginta-Übersetzer”, A. Aejmelaeus and R. Sollamo, eds., *Studien zur Septuaginta-Syntax*, Helsinki: Suomalainen Tiedeakatemia, 1987, 28-39.
- Swete, H. B.,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in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14.
- Thackeray, H., *A Grammar of the Old Testament in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org. ed. 1909.
- Woo, S-H., “Etudes sur le système verbal dans la Septante de Job”, Th.D. Dissertation, Université Strasbourg II - Marc Bloch, 2006.

<Abstract>

## **A Translation Technique and a Verbal Form of Hebrew**

Dr. Sang-Hyuk Woo

(University of Strasbourg 2 [Marc-Bloch], Th. D. degree)

This study focused on analysis of the choosing reasons of the Greek verbal forms by translator(s) of the Septuagint of the Book of Job. In particular, the study traces two opposed models, namely the assimilation and dissimilation which were regarded as the techniques of transl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both the Hebraic and Greek verbal forms, it treats the influences of these grammatical system on the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The study is presented in two main parts: The first presents an interference of the grammatical natures of the Hebrew language. The second consists of an equally interference of selected and transcribed verbal examples of the Greek language. It will be provided a more detailed account for the mutual influence of both languages, especially, assimilation and dissimilation which had been appeared in the translating techniques of the Septuagint - Job. In conclusion, the techniques of translation in the Septuagint Book of Job will be suggested for understanding the style of Greek. After all, the comprehension of the Hebraic and the Greek is pivotal important to the techniques of translation in the Septuagint. It will be carried out the terms of assimilation and dissimilation as reference point. Because of this point, the Greek Septuagint of Job does have a relevancy to the Hebraic text linguistically.